

일측폐 적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의 임상적고찰

가톨릭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
김치경, 최승호, 이해영, 조건현, 왕영필, 광문섭, 김세화

가톨릭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83년 1월부터 1993년 8월 사이에 일측 폐 적출술 (pneumonectomy)을 시행한 환자 66명을 관찰 대상으로 삼았다.

나이는 6세부터 80세의 분포를 보이고 60대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.

그중 남자 47명, 여자 19명으로 남녀비는 2.5:1 이었다.

총 66명중 우측 폐 적출술이 27명, 좌측 폐 적출술이 39명으로 좌우비가 1.44:1 이었다.

일측폐 적출술을 시행하게된 원인질환은 폐암이 43예, 이중 편평 상피세포암이 25예, 선암 5예등 순이었다.

그다음 원인질환으로 기관지 확장증이 8예를 차지하였다.

본 교실에서는 일측 폐 적출술을 시행할 환자에서 수술전 폐 기능을 측정하여 그 적응 대상을

1초간 강제호기량 (FEV1) > 2L, FEV1 /노력성 폐활량 (FVC) > 50%, 1분간 최대환기량 (MVV) > 55%, 폐활량 (VC) > 50% 으로 삼았다.

그 경계선에 위치하여 요주의 하였던 3예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만족스러운 폐 기능 검사소견을 보였다.

본 교실에서는 80년대 초에는 기관지 절제부위를 수봉합으로 행하여 26명에서 시행하였고, 80년대 말기부터는 봉합기를 사용하여 40명에서 시행하였다.

전체 환자 66명중 일측 폐 적출술후 흉관 삽입군이 53명, 흉관 삽입을 안한군이 13명으로 이 두군 사이에서 차이점을 비교 관찰하였다.

수술후 합병증으로는 농흉이 8예로서 가장 많았고, 출혈 6예, 심방세동 발생 5예 등이었다.